

정의 모순

연출의도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해를 가한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회의 모순을 표현했다.

주변 사람, 즉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한 것은 관대하게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의 모순적인 면모를 보여주려고 했다.

로그라인

이중인격의 정신병을 가진 운정은 자신도 모르게 살인을 저지르지만, 자신이 저지른 짓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죽인 이를 추모한다.

시놉시스

엄마 연정과 떨어져 살며 학교에 다니는 운정. 이중인격의 정신병으로 인해 자신에게 쌍둥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운정은 자신은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건으로 인해 학교에서 심하게 왕따당한다. 쌍둥이에게 이를 추궁해도 쌍둥이는 계속해서 부정한다. 심하게 깔끔한 성격을 가진 운정은 다른 것들에는 가만히 있지만 자신이 정리해 놓은 책상을 건드리거나 물건을 손대는 것에 격하게 반응한다. 성격에 걸맞게 학교에서 닭장 청소를 맡은 운정은 청소를 하러 매일 뒤뜰로 향한다.

어느 날 학교에서 병아리가 한쪽 날개가 뜯겨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 산짐승의 소행으로 볼 수 없는 일에 학교가 발각 뒤집히는데, 운정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닭장 청소 도구를 들고 나갔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는다. 운정은 자신의 이중인격인 쌍둥이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쌍둥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때, 연정의 전화를 받고 오늘이 연정의 생일임을 안 운정은 연정을 만난다. 연정과 대화를 하며 쌍둥이를 언급한 운정. 연정은 그런 운정이 자신과 같은 정신병을 가지게 되었음을 직감한다.

18년 전의 학교, 연정은 현재의 운정과 같이 닭장 청소를 맡았고, 닭장의 닭들이 죽는 사건으로 인해 왕따당한다. 기우는 그런 연정에게 접근하고 둘은 연인 사이가 되지만, 기우는 외로운 여학생들을 꼬시는 바람둥이였고, 기우에게 배신감을 느낀 연정의 이중인격은 기우를 죽여버린다. 연정은 기우의 아이, 즉 운정을 임신한 상태였고, 연정은 기우의 죽음에 슬퍼한다.

현재, 운정은 등교를 하자마자 하연에게 붙잡혀 유진의 죽음에 대한 의심을 받는다. 격한 몸싸움까지 이어지자, 주변 친구들은 하연을 말리고, 운정은 연정에게 연락해 국화꽃을 부탁한다. 운정의 정신병으로 인한 사건임을 직감한 연정은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기우와의 추억을 열어보며 죄책감을 느낀다.

연정과 운정은 유진의 책상에 국화꽃을 올리며 유진을 추모한다. 운정은 유진의 죽음이 자신의 짓임을 알지 못하고 유진의 SNS에 추모 댓글을 남기고, 연정은 그런 운정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며 운정의 더한 행동을 막기 위해 운정에게도 약을 주기로 결정한다. 두 모녀는 차를 타고 학교를 빠져나간다.

인물소개

강운정(17/여)

이중인격의 정신병을 가지고 있어 자신에게 쌍둥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쌍둥이와 번갈아 학교를 간다고 생각하며 생활하고, 자연스럽게 이를 엄마의 뜻이라고 여긴다. 심하게 깔끔한 성격으로 인해 뭐든지 완벽하게 맞추려는 강박을 가지고 있으며, 살해의 인격을 가진 이중인격으로 인해 닭장의 병아리를 죽이고, 자신을 괴롭히는 유진을 죽이지만, 자신의 짓임을 알지 못하고 이들을 추모한다.

박연정(35/여)

이중인격의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정신병을 자각하지 못한채로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운정과 같이 닭장의 닭들을 죽여버리는 사건으로 인해 왕따를 당한다. 그런 자신에게 다가온 기우에게 사랑에 빠지지만, 기우의 바람으로 인해 기우를 죽여버린다. 기우의 아이인 운정을 낳아 키워오다 자신의 정신병을 알게되고, 심리학을 전공하는 정신병원 의사가 된다. 운정에게도 같은 정신병이 있음을 알게되어 운정의 범죄를 숨기고 약을 먹여 운정의 정신병을 숨기려고 한다.

연정 왔어?
운정 미리 전화하지 그랬어요.
연정 너 바쁠까봐 그랬지.

운정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그런 운정을 다정하게 바라보던 연정은 목에 걸고 있던 무언가를 벗어 책상 위에 둔다.

연정 엄마 생일케이크. 같이먹자.
운정 오늘은 안 바빠요?
연정 응. 오늘은 저녁 예약 빼고 왔지.
운정 요즘도 환자 많아요?
연정 응.

표정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운정.
그때, 기다리던 밀면이 나온다. 대칭이 딱 맞게 모양새가 잡혀있는 케이크.
운정은 빵칼을 들어 케이크를 3등분한다.
그런 운정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연정.

연정 뭐해?
운정 어차피 나눠야 하잖아요.

연정은 운정을 이상한 눈빛으로 계속 바라본다.
운정은 나는 케이크를 퍼먹는다.
그런 운정을 계속 신경 쓰는 연정.

연정 요즘 학교생활은 어때?
운정 그냥, 그저 그래요.
연정 무슨 문제는 없고? 집은?
운정 아무 문제 없어요.

연정은 운정을 씩씩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운정 근데 왜 안 오지?
연정 응? 뭐가?
운정 엄마 생일인데 안 오잖아요.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연정,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고민한다.

연정 뭐가?
운정 음, 아니에요. 다음에 데려올게요.

연정은 한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운정을 바라본다.
그때, 3등분 되어있는 케이크를 보며 무언가 알아챈 듯 심각한 표정을 짓는 연정.
연정은 운정에게 무언가 말하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망설인다.

연정 운정아.
운정 응?
연정 무슨 일 없지?
운정 없어요.

연정 어제 뭐 했어?
운정 응?

운정은 잠시 고민한다. 눈을 굴리며 한참을 고민하던 운정은 밀면을 한 입 먹는다.

운정 그냥, 학교 다녀왔죠.
연정 어제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운정, 당황하고, 잠깐 고민한다.

운정 응, 그렇죠. 바빴어요.

연정은 운정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다.
잠시 고민하던 연정은 주머니에 있는 약통을 만지작거리지만, 차마 꺼내지는 못한다.
이내 운정을 쳐다보더니, 그저 운정을 보며 다정하게 웃기만 하는 연정.

연정 다 먹었어?
운정 아까 석식 먹어서 잘 안 넘어가요.
연정 그래. 이제 가자, 피곤할 텐데.
운정 네. 생일 축하해요.
연정 응, 고마워.

연정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운정도 연정을 따라 일어난다.
계산한 연정은 운정과 함께 밖으로 나간다.

운정 먼저 갈게요.
연정 그래, 조심히 들어가고.

운정은 손을 흔들곤 뒤돌아 집을 향해 걸어간다.

연정 운정아!

뒤도는 운정. 당황하며 잠시 머뭇거린다.

운정 네?
연정 차로 태워다줄까?
운정 ... 아니요! 괜찮아요!

운정은 다시 뒤돌아 집으로 향한다.
연정은 그런 운정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본다.

S#6 / 18년 전의 학교, 교실. / 아침

교실로 들어오는 연정. 연정이 교실로 들어오자, 주변은 수군대기 시작한다.
연정은 가방을 책상 옆에 걸고, 익숙한 듯 책상 위를 정리한다.

망가진 명찰을 주머니에 넣는 연정.
연정은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한다.
그때, 연정의 책상을 탁 치는 누군가.

기우 안녕 정아?
연정 어?
기우 뭐해?
연정 나.. 책 읽는데.
기우 무슨 책?
연정 그냥, 소설..

기우는 연정을 보여 씩 웃는다.

기우 나랑 친구 할래?
연정 어?

기우는 손을 건넨다.
그런 기우의 손을 한참 동안 바라보는 연정.
연정은 기우의 얼굴과 손을 번갈아 쳐다보다, 기우의 손을 잡는다.
약수하는 둘.

S#7 / 학교 뒤뜰 벤치 / 오후

따스한 햇살 아래, 뒤뜰 닭장 앞에 쭈그려 앉아있는 연정.
연정은 모이 그릇에 병아리 모이를 담아 닭장 앞에 둔다.
국화꽃을 닭장 위에 올려놓는 연정.
그때, 연정에게 달려와 흰색 안개꽃과 장미를 쥐여주는 기우.

연정 이게 뭐야?
기우 선물.
연정 왜?
기우 친해지고 싶어서.
연정 왜?

닭장 안을 바라보는 기우.

기우 이거 재미있어서.
연정 나 아닌데.
기우 알아.
연정 근데?
기우 그냥.

연정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기우를 바라본다.
그러다 그냥 기우가 준 꽃을 바닥에 두고 한참을 바라보는 연정.
꽃을 바라보다 살짝 웃는 연정.

바람에 장미가 날아가버리고, 연정은 당황한다.
기우는 그런 연정을 따듯한 눈빛으로, 웃으며 바라본다.

S#8 / 몽타주씬 / .

[도서관/낮]

연정과 기우는 함께 책을 읽으며 웃음을 참고 있다.
웃다가 기우를 바라본 연정. 얼굴이 가까워지자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린다.

[주택가 계단/밤]

계단에 앉아서 기우를 기다리는 연정.
멀리서 기우가 걸어오고, 계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연정을 바라보다 손을 잡는 기우.

연정	어?
기우	놓을까?
연정	... 아니.

꽉 잡고 있는 둘의 손.

[학교 벤치/낮]

손을 잡고있는 기우와 연정.
활짝 웃으며 기우와 붙어 포즈를 잡는 운정.
디카로 같이 사진을 찍는다.
계속해서 사진을 찍다 기우에게 팔짱을 끼는 운정.

[사람이 몇 없는 학교 복도/낮]

다른 여자아이가 팔짱을 낀 상태로 기우와 걸어간다.
그 뒤로 연정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
연정은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한다.
계단을 뛰어 내려가다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떨어트리는 연정.

[사람이 없는 골목/밤]

바닥에 무언가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건물 비상계단에 쭈그려 앉아있는 연정.
주머니에서 생일 축하 편지를 꺼내 뒤적거린다.
연정은 몸을 일으키다, 갑작스러운 고통에 배를 잡으며 움찔한다.

[운정의 집/밤]

이불을 뒤집어쓴 채 가만히 생각하는 듯 보이는 운정.
11시 59분에서 12시가 된다.
달력에 보이는 엄마의 생일과 바로 다음날의 아빠의 기일.

S#9 / 교실 / 아침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운정.

운정이 교실로 들어서자마자 하연이 뛰어와 운정을 밀친다.

하연 너 뭐야?
운정 왜, 왜?
하연 니가 그랬지? 그냥 찢었어야 했는데..!
운정 뭘 말하는 거야?

그때, 운정의 눈에 들어오는 유진의 책상.

유진의 사진들과 함께 국화꽃이 올려져 있다.

운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책상을 쳐다본다.

운정 어...!
하연 연기하지 마 미친년아.

하연, 운정의 머리채를 잡는다.

교실이 소란스러워지고, 몇몇 친구들이 하연을 말린다.

그때, 학생1이 달려들어 거칠게 하연을 때어낸다.

학생 1 야, 다 알겠는데 이건 좀 아니지.
 왜 멀쩡한 애를 살인자로 몰아가?
하연 너 애가 병아리 죽였던 거 기억 못 해?
 사람이라고 못 죽이겠어?
학생 2 망상 좀 그만해. 그건 좀 아니다 하연아.
 그것도 증거 없지않아?
하연 구경만 하던 새끼들이.. 이제와서..

학생 2, 주춤한다.

하연, 주변을 돌아본다.

좋지 않은 주변의 시선을 본 하연은 도망치듯 그곳을 벗어난다.

운정은 아무렇지 않은 듯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주변 친구들은 운정을 다독인다.

자리에 앉는 운정. 엄마에게 전화를 건다.

운정 응, 엄마. 오늘 아빠 기일이잖아요.
 근데 반에도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요.
 응, 국화꽃 두 송이만 사다 줄 수 있어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S#10 / 연정의 사무실 / 낮

전화를 끊는 연정. 연정은 전화기를 한참 동안 바라본다.

테이블 위 약통을 열어 약을 먹곤 거울을 바라보는 연정.

거울 아래에 있는 선반을 바라본다.

선반 쪽으로 가 선반 위 먼지가 쌓인 액자를 손으로 문지르는 연정.

연정과 기우가 디카로 함께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있다.

연정, 선반을 연다.
선반 안에 들어있는 기우와의 추억들, 그리고 운정과 같은 연정의 옛적 교복.

S#11 / 교실 / 오후

국화 두 송이를 양쪽 손에 한 송이씩 들고 교실로 들어오는 운정.
운정은 유진의 책상을 정리하더니 중앙에 놓인 액자 양쪽으로 국화 두 송이를 한 송이씩 놓는다.
썩쓸한 표정으로 유진의 사진을 한참동안 바라보는 운정.
문밖에서 그런 운정을 바라보는 연정.

운정	엄마.
연정	다 됐어?
운정	네.
연정	이제 갈까?
운정	네.

운정은 텅 빈 교실의 문을 닫고, 자물쇠로 잠근다.

S#12 / 학교 앞 - 주차장 / 오후

학교 계단을 내려오는 운정과 연정.
연정은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운정은 계단에 앉는다.

[연정의 차 안]
연정은 차 안에 앉아 한참을 고민하다 가방에서 약통을 꺼낸다.
백미러에 걸린 기우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계속해서 바라보다,
조수석 거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곤 황급하게 닫아버린다.

[계단]
운정은 휴대폰을 열어 SNS에 들어간다.
유진의 사진 아래 여러 추모 댓글이 보인다.
댓글창을 열어 댓글을 쓰는 운정.

[연정의 차 안]
연정은 시동을 건다.

[계단]
연정의 차가 나온 것을 보곤 계단을 내려가는 운정.
차의 문을 연다.
그런 운정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연정.
운정은 차에 타고, 차의 문을 닫는다.

[차 안]
운정은 연정과 기우가 함께 찍은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본다.
사진 양쪽 위에 붙은 하트 스티커를 보며 미소를 짓는 운정.

한쪽 하트 스티커의 끝면이 살짝 아래져있다.

윤정	엄마.
연정	응?
윤정	아빠도 참 불쌍하다 그죠?

윤정을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연정.

연정	아빠 이야기는 하지 마.
윤정	왜요, 아빠도 엄마 보고싶을텐데.
연정	너..
윤정	안 가요?

연정은 윤정을 한참 바라보다 차의 시동을 건다.

[도로]

학교를 빠져나가는 연정의 차.